대학과 지역이 함께 만드는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

강원앵커센터

Gangwon Anchor News Letter

7-8월 호

강원앵커센터

‘강원 앵커’ 선포…학생 중심 인재양성 본격화

지난 7월 28일 강원특별자치도는 춘천 소담스퀘어 강원에서 「강원 앵커(ANCHOR) 선포식」을 개최하고, 지역성장 인재양성 체계인 ‘강원 앵커’의 새로운 출발을 공식 선언했다. 이번 선포식은 교육부의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가 ‘앵커(ANCHOR)’로 개편됨에 따라 변화된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지역인재 양성과 청년 정착을 중심으로 한 강원형 인재양성 비전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강원 앵커는 단순한 명칭 변경을 넘어 대학 중심에서 학생 중심으로 인재양성 정책의 방향을 전환하는 데 중점을 둔다. 대학의 교육 역량과 지역기업의 인재 수요를 연결해 지역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고, 교육에서 취업과 지역정주까지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대학·기업·혁신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고, 청년이 강원에서 배우고 일하며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앞으로 강원특별자치도와 강원앵커센터는 대학과 기업, 지역 혁신기관의 역량을 연결해 인재양성-취·창업-지역정주로 이어지는 강원형 인재 생태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지역산업과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대학과 함께 양성하고, 교육과 취업의 연계를 강화해 지역인재가 지역기업으로 취업하고 강원에 정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힘쓸 계획이다.



강원앵커, 교육부 1차년도 연차점검 'A등급' 달성

강원특별자치도와 강원앵커센터는 교육부가 실시한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앵커) 1차년도 연차점검」에서 A등급을 받아 전국 상위권의 평가를 받았다. 이번 평가에서는 도와 강원앵커센터, 지역대학이 협력해 사업 기반을 마련하고, 대학의 교육·연구 역량을 지역산업과 연계해 온 성과를 인정받았다.

특히 지역과 대학 간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인재양성-취·창업-지역정주로 이어지는 사업 기반을 구축하고, 지역여건과 대학별 특성을 반영한 사업을 추진한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대학별 추진상황과 성과를 월별로 점검하고 주요 현안을 지속적으로 공유하는 등 체계적인 성과관리와 소통체계를 운영해 왔다.

이번 A등급 획득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는 10% 이내 수준의 성과 인센티브를 추가로 지원받을 예정이다. 인센티브는 1차년도 자체평가와 교육부 연차점검 결과를 반영해 성과가 우수한 분야를 확대하고, 보완이 필요한 분야를 개선하는 데 활용할 계획이다.

앞으로 강원특별자치도와 강원앵커센터는 학생과 성과 중심으로 사업구조를 고도화하고, 프로젝트 간 연계와 초광역 협력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대학의 성과가 지역산업과 지역사회로 확산되고, 학생과 대학, 지역이 함께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 창출에 집중할 계획이다.



2026년 수도권·3특 앵커 하계 포럼 개최

지난 8월 4일 연세대학교 대강당에서 「수도권-3특 앵커 하계 포럼」이 개최됐다. '헥사곤의 시너지, 균형 성장을 이끈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에는 교육부, 지방시대위원회, 중앙 및 수도권·3특 앵커센터, 대학 앵커사업단 관계자 등 700여 명이 참석해 지역 간 연계·협력을 통한 앵커사업의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포럼은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앵커)와 5극 3특 산업 전략' 기조강연을 시작으로서울·인천·경기·강원·전북·제주의 초광역 협업 계획 릴레이 발표로 이어졌다. 강원에서는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앵커사업단이 참여해 강원의 지역산업과 대학 역량을 기반으로 한 초광역 협업 방향을 공유했으며, 각 지역에서도 산업 특성과 대학의 강점을 활용한 협력 계획을 발표했다.

이어 '앵커와 5극 3특 시대, 수도권 및 3특 산업 협력 전략'을 주제로 종합토론을 진행해 지역별 산업과 대학의 역량을 연계하고 권역을 넘어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와 함께 '앵커 우문현답 자문단'을 운영해 수도권·3특 소재 대학 앵커사업단이 사업 추진 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과 질의사항을 청취하고 전문가 자문을 제공하는 등 현장 중심의 소통도 이뤄졌다.

이번 포럼은 수도권과 강원·전북·제주가 각 지역의 앵커사업 추진현황과 협업 방향을 공유하고, 대학과 지역산업을 연결하는 초광역 협력 기반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 앞으로도 지역 간 지속적인 교류와 공동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인재 양성과 전략산업 발전을 연계하고, 권역을 넘어 성과를 확산할 수 있는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2026년 강원앵커 서포터즈 오리엔테이션 개최



지난 8월 20일 강원앵커센터에서 「2026년 강원앵커 서포터즈 오리엔테이션」을 개최했다. 이번 오리엔테이션은 강원앵커 사업의 인지도를 높이고 정책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선발된 서포터즈의 본격적인 활동 시작에 앞서 사업에 대한 이해와 활동 역량을 높이고자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도내 대학생으로 구성된 강원앵커 서포터즈 10명이 참석했으며, 향후 다양한 온라인 콘텐츠를 직접 제작하고 홍보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촬영 및 숏폼 콘텐츠 제작 역량 강화 교육도 함께 진행됐다.

앞으로 강원앵커 서포터즈는 대학생의 시각에서 강원앵커 사업과 지역·대학의 다양한 소식을 발굴하고 SNS 콘텐츠로 알리는 홍보활동을 통해 대학생과 지역사회가 강원앵커 사업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소통을 이어갈 예정이다.

강원앵커센터, ‘G-Unity’ 제2차 회의 개최



지난 8월 26일 강원앵커센터는 강원인재원에서 지산학연 협력 네트워크 「G-Unity」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 회의는 지역 내 기관별로 분산된 창업지원 기능과 자원을 연계하고, 앵커사업을 중심으로 기관 간 실질적인 공동 협력과제를 발굴·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서는 참여기관이 사전에 제안한 창업 분야 협업과제를 공유하고 기관별 역할과 실행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특히 G-Unity의 운영방식을 정례적인 정보공유 중심에서 공동과제 발굴·실행 중심의 협력체계로 확대하고, 창업 프로그램의 중복을 줄이기 위한 기관 간 연계·조정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강원앵커센터는 이번 논의를 토대로 후속 실무협의를 통해 창업 분야 공동사업을 구체화하고, 향후 인재양성·취업·기업지원·기술사업화 등으로 협력 분야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역·산업·대학·연구기관의 자원과 역량을 연결하고, 공동과제의 발굴부터 실행까지 이어지는 지산학연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대학·군·산업·연구기관 잇는 국방 평생교육 모델 구축 (강원대학교(춘천캠퍼스))

강원대학교 앵커사업단은 6월 22일부터 7월 3일까지 춘천캠퍼스 한빛관에서 첨단군사과학기술연구소와 공동으로 지역 국방·방위산업 수요와 대학의 전문교육 역량을 연계한 「2026년 국방사업관리사 자격증 교육과정」을 운영했다.



방위사업청·국방부·대학·산업현장 전문가 17명이 강사진으로 참여하였으며, 교육은 국방기획관리, 체계개발, 계약관리, 시스템 엔지니어링 등 무기체계 사업관리 전반의 28개 교과목을 이론과 실제 사례 중심으로 구성했다.

현역 군인과 대학생, 기업·연구기관 재직자, 지역주민 등 52명이 등록해 50명이 수료하여 96.2%의 수료율을 기록하였으며, 이를 통해 군·산·학·연이 함께 참여하는 지역 맞춤형 평생교육 모델을 구축했다.

향후 대상별 교육과정과 자격시험 특강, 수료생 멘토링을 확대하고 지역 방산기업 및 관련 기관의 인력 수요와 연계할 계획이다.

경동대-원주고 연계 '체험형 진로 프로그램' 운영 (경동대학교)

경동대학교 RISE사업단은 원주고등학교와의 협력체계를 기반으로 고교생들에게 지역 의료기관의 실제 임상현장을 경험할 수 있는 보건·의료 분야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고교생 70여 명을 비롯해 교사와 교수 등 총 80여 명이 참여했다.



학생들은 연세메디하임병원과 원주의료원을 방문해 간호사, 물리치료사, 임상병리사 등 보건·의료 분야의 주요 직무에 대한 특강을 듣고, 간호병동과 운동치료실, 건강검진센터, 재활치료센터 등을 직접 견학했다.

특히 병원 현장에서 재활치료 과정, 임상병리 검사, 심전도검사 및 의료장비 활용 등 직무별 실무를 직접 확인하며 전공과 진로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교과과정에서 접하기 어려운 실제 임상환경을 체험함으로써 학생들이 향후 전공 선택과 진로를 구체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경동대학교 RISE사업단은 앞으로도 고교학점제와 대학의 전문 교육자원, 지역 의료인프라를 연계한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지역 청소년의 진로 탐색부터 대학 진학과 취업까지 이어지는 연계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보건·의료 분야의 우수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 취업과 정주로 이어지는 지역인재 양성체계 구축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이너써클 네트워킹 데이’ 개최...창업기업 협업 기반 강화 (상지대학교)

상지대학교 창업보육센터와 앵커사업단 벤처창업본부는 원주에서 ‘이너써클 네트워킹 데이’를 공동 개최하고, 창업기업 간 교류활성화와 협력 네트워크 구축에 나섰다. 이번 행사는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들이 서로의 사업과 경험을 공유하고, 기업 간 협업 기회를 발굴하는 한편 창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서는 입주기업 소개와 함께 모딕션 성미경 대표가 ‘시장을 이기는 방법’을 주제로 창업 과정과 사업 운영 경험을 공유했다. 이어 자유 네트워킹을 통해 참여기업들이 각자의 사업 아이템과 운영 노하우를 소개하고, 향후 협력 가능성과 연계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이번 프로그램은 단순한 정보교류를 넘어 창업기업 간 실질적인 협업 기반을 조성하고 기업의 성장 가능성을 높이는 네트워크 구축의 장으로 운영됐다. 창업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창업교육과 전문가 멘토링, 네트워킹, 투자·판로 연계 등 다양한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이어갈 계획이다.

'2026 강원앵커산학공동기술개발과제 협약식' 개최 (연세대학교(미래))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는 지난 7월 13일 호텔인터불고 원주에서 ‘2026 강원앵커 산학공동기술개발과제 협약식’을 개최하고, 대학과 기업 간 공동연구 활성화와 산학협력 네트워크 강화에 나섰다.



이번 협약식은 산학공동기술개발과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연구책임자와 참여기업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대학·기업·유관기관 등 사업 참여 주체가 지속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공동연구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강원앵커 사업 및 산학공동기술개발과제의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과제별 협약을 체결했으며, 우수과제 및 기업 사례 발표를 통해 주요 성과와 향후 발전 방향을 공유했다. 이를 통해 참여기관 간 네트워킹을 강화하고 공동연구와 기술개발을 위한 산학협력 기반을 확대했다.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는 앞으로 산학공동연구를 통해 창출된 성과가 기술사업화와 기업 경쟁력 강화, 지역 특화산업 육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대학·기업·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산학협력 생태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2026 여름학기 늘봄강사 심화 연수' 운영 (춘천교육대학교)

춘천교육대학교는 지역 특성화 늘봄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을 위한 「2026 여름학기 늘봄강사 심화 연수」를 운영하며, 현장 중심의 전문 강사 양성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문화·예술, 창의·과학, 체육, 교과 교육 등 총 6개 과목으로 구성됐으며, 춘천·원주·양구·평창 등 강원권 주요 지역에서 진행됐다. 특히 지역별 교육환경과 수요를 반영한 실무 중심 교육을 통해 늘봄강사의 교수법 숙련도와 현장 대응력 등 실질적인 수업 역량 강화에 중점을 뒀다.



춘천교육대학교는 이번 연수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지역 맞춤형 늘봄교육의 전문성을 높이고, 현장 중심의 강사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전국 학부논문경진대회 '참여학생 8명 전원 우수논문상' (한라대학교)

한라대학교는 지난 7월 9일부터 11일까지 부산에서 열린 '(사)국제차세대융합기술학회 하계융합학술발표대회 및 학부논문경진대회'에 참가해 전원 우수논문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 대회에는 강원 앵커사업 단위과제 2-1 '지역 취업·정주형 특성화대학 운영' 참여학생들이 참가해 가상 데이터를 활용한 익명처리 기술 및 데이터 분석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학생들은 개인정보 데이터를 직접 정제하고 비식별화하는 연구과정을 수행하며 실무 중심의 데이터 활용 및 문제해결 역량을 높였으며, 학과 간 융합형 팀 프로젝트를 통해 협업과 소통 역량도 강화했다.

특히 참가학생 전원이 우수논문상을 수상함으로써 연구 성과의 학술적 가치와 실무적 활용 가능성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았으며, 전국 규모 학술대회에서 직접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 실전 경험을 통해 관련 분야의 취업 경쟁력을 한층 높이는 계기를 마련했다.

한라대학교 앵커사업단은 앞으로 교내 예선 및 사전 컨설팅 등 학생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전국 단위 경진대회 참여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산·학·관 협력과 기업 수요 기반의 채용 연계 체계를 구축해 미래산업을 선도하고 지역에 정주할 수 있는 데이터 분야 혁신인재 양성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한림대-춘천시, ‘2026 Station C 로컬라이제이션’ (한림대학교)

한림대학교와 춘천시는 지난 18일 한림대 Station C-Core에서 ‘2026 Station C 성장자립지원 로컬라이제이션(춘천지역 이전기업 지원사업) 협약식’을 개최하고, 강원권 외 유망 창업기업의 춘천 이전과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위한 협력을 강화했다



양 기관은 지난해 강원권 외 유망 창업기업 9개사의 춘천 이전을 지원한 데 이어, 올해 의료·바이오, 인공지능(AI), 안티드론, 친환경 소재, 디지털 콘텐츠 등 다양한 분야의 창업기업 8개사를 추가 발굴·유치했다.

Station C 로컬라이제이션은 기업 발굴부터 춘천 이전, 지역 고용, 정착, 후속 성장지원까지 단계별로 연계하는 지역 정착·성장 프로그램이다. 단순한 기업 이전을 넘어 지역 내 지속적인 고용과 사업활동을 유도하고, 기업의 성장 단계에 맞춘 지원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한림대학교와 춘천시는 앞으로도 대학과 지자체 간 협력체계를 기반으로 유망기업의 지역 유입과 지역인재 채용을 확대하고, 이전기업이 춘천에 안정적으로 정착·성장할 수 있는 창업 생태계를 조성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2026 하계 강원권 전문대학 RISE사업 공동 성과포럼

지난 7월 21일 강릉 세인트존스호텔에서 강원권 전문대학 RISE사업 성과포럼 「RISE Together ANCHOR in Gangwon」이 개최됐다. 이번 포럼에는 강릉영동대, 강원도립대, 세경대, 송곡대, 송호대, 한국골프과학기술대, 한림성심대 등 도내 7개 전문대학 관계자와 지자체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지역 정주 인재 양성을 위한 대학 간 협력방안을 모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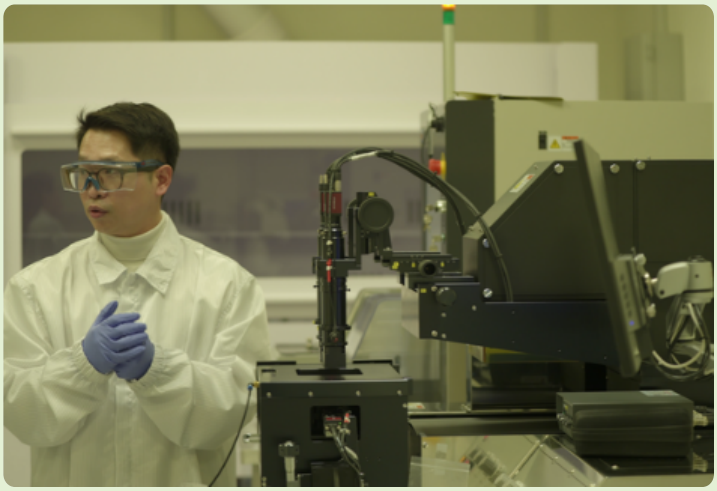
행사에서는 7개 전문대학이 2025년도 RISE사업의 주요 성과와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대학별 특화 분야를 바탕으로 한 협력 가능성을 논의했다. 이어 ‘ANCHOR체제 아래 강원 지역 전문대학 평생교육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전문가 특강을 진행하고, RISE-ANCHOR 전환에 따른 공동 대응 전략과 향후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번 포럼을 통해 강원권 전문대학 간 사업 성과와 운영 노하우를 공유하고 지자체-센터-대학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앞으로도 대학 간 지속적인 연대와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 고등직업교육의 경쟁력과 지역 정주 기반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교원창업기업 '실리노바', 3차원 커패시터 사업화 추진 (강원대학교(춘천))

강원대학교 교원창업기업 실리노바는 강원대 앵커사업단과 대학의 반도체 연구·공정 인프라를 기반으로 차세대 3차원 실리콘·유리 커패시터 사업화를 추진하고 있다. 반도체 식각 기술을 활용해 기존 커패시터의 온도·고주파 환경에서의 성능 한계를 보완하고, 방산·우주항공 등 극한 환경에 적합한 고성능 부품 시장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제품 개발과 생산에는 강원대학교의 클린룸과 반도체 장비 등 연구 인프라가 활용된다. 실리노바가 제품 설계와 식각 공정 기술을 담당하고 대학의 장비·시설을 연계하는 방식으로 초기 기업의 설비 투자 부담을 낮추는 동시에, 대학의 연구 인프라가 실제 제품 개발과 사업화로 이어지는 산학협력 모델을 구축하고 있다.

강원대 앵커사업단은 기업 홍보, 투자유치 자료 고도화, 전문기관 연계 등 사업화 지원을 통해 실리노바의 시장 진입과 성장을 지원할 예정이며다. 향후 실리노바는 사업 영역을 확대하며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스마트 의료돌봄 리빙랩 초청 시연회 (경동대학교)

지난 11일 원주 메디컬캠퍼스에서 원주시 및 문막읍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스마트의료돌봄 리빙랩 시연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강원앵커사업의 일환으로 대학이 구축한 스마트의료돌봄 리빙랩 모델을 지역사회에 소개하고, 노인돌봄서비스의 디지털 전환과 지역 맞춤형 의료·돌봄 체계 구축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디지털 기능평가존, 기능안정화존, 운동회복존으로 구성된 리빙랩을 직접 체험하며 균형력·근감소·스트레스 등 신체기능 평가부터 맞춤형 근력 보완 및 회복 프로그램까지 이어지는 스마트의료돌봄 과정을 확인했다. 또한 돌봄이 필요한 지역주민 발굴과 마을 단위 의료·돌봄 서비스 구축 등 향후사업 추진 방향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향후 실제 주거환경을 반영한 가옥형 리빙랩을 추가 조성하고, 방문돌봄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전문인재 양성과 지역밀착형 의료·돌봄 서비스 모델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강원-대구경북 초광역 반도체벨트 구축 (상지대학교)

지난 20일 상지대학교는 강원과 대구·경북을 연계한 초광역 반도체·첨단산업 산학협력 모델 구축에 나섰다. 이번 협약은 양 대학이 보유한 인프라와 앵커사업 성과를 지역 간 협력으로 확장하고,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한 공동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대학은 앵커사업 우수 프로그램 공유를 비롯해 교원 공동연구 및 연구자 교류, 지역산업·기업 연계 산학협력, 정부·지자체 재정지원사업 공동기획,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상지대의 강원지역 반도체 특화 인재양성 및 산학협력 인프라와 대구공업대의 현장 중심 산학협력 역량을 연계해 권역 간 협력체계를 구체화할 예정이다.



향후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공동 연구·사업 분야를 발굴하고, '성과공유-공동기획-공동연구-초광역 과제 발굴'로 이어지는 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대학과 산업체까지 참여하는 지역 앵커대학 간 초광역 협력 기반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2026 강원앵커 지산학 파트너스포럼' 개최 (연세대학교(미래))

지난 8월 26일부터 27일까지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앵커사업단은 충북 제천 포레스트 리솜에서 「2026 강원앵커 지산학 파트너스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대학의 기술과 기업의 수요가 만드는 지역혁신-산학공동연구에서 학생 창업까지'를 주제로, 산학협력 기반 연구 성과를 공유·확산하고 지역 전략산업의 기술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서는 산학공동기술개발과제 연구 성과 및 포스터 전시, 참여대학 우수 연구 성과 발표, 공동기기센터 홍보, G-Tech 브릿지 신규 가입·협약 및 기업 소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특히 참여 교원과 기업, 대학 간 연구 성과와 기술 수요를 공유하며 후속 공동연구와 기술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는 협력 기반을 마련했다.

미래캠퍼스 앵커사업단은 이번 포럼을 바탕으로 '기술 발굴-공동연구-창업·사업화-스케일업'으로 이어지는 산학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대학의 연구 성과가 지역기업과 학생 창업기업의 성장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후속 협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양구 지역자원 활용 백자 문화관광상품 개발 (춘천교육대학교)

지난 6월 8일부터 8월 20일까지 춘천교육대학교 앵커사업단은 2026년 제1차 산학 공동 기술·지식 개발 과제로 「양구 지역 자원 활용한 백자 관광상품 개발 연구」를 추진했다. 이번 연구에는 춘천교대 교수와 양구군 소재 기업이 참여해 지역 고유의 백자문화 자원과 대학의 연구 역량, 지역기업의 현장성을 연계한 관광상품 개발에 나섰다.



연구진은 양구 백자의 조형적 특성과 지역성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실용성과 상품성을 갖춘 문화·관광 콘텐츠 개발에 주력했다. 그 결과 백자의 형태와 색감을 반영한 화병, 머그컵, 접시 등의 관광상품 디자인과 시제품을 개발해 일상에서 활용할 수 있는 공예상품으로 구체화했다.

연구진은 양구 백자의 조형적 특성과 지역성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실용성과 상품성을 갖춘 문화·관광 콘텐츠 개발에 주력했다. 그 결과 백자의 형태와 색감을 반영한 화병, 머그컵, 접시 등의 관광상품 디자인과 시제품을 개발해 일상에서 활용할 수 있는 공예상품으로 구체화했다.

라이프사이언스 스타트업 투자유치 세미나 개최 (한림대학교)

지난 8월 11일 한림대학교는 춘천 세종호텔에서 바이오·ICT 분야 초기 창업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초기 라이프사이언스 스타트업 투자유치 및 성장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 강원앵커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에는 지역 기업과 투자·산업 분야 전문가, 유관기관 관계자 등 70여 명이 참여해 지역 스타트업의 성장과 투자유치 방안을 함께 모색했다.



이번 세미나는 초기 기업이 사업화 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비즈니스 모델 구축부터 투자유치, 지식재산 관리까지 기업 성장 단계별 실무 역량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특히 전문가와 기업이 직접 소통하는 상담 및 네트워킹을 통해 기업별 사업 방향을 점검하고, 향후 투자와 사업화로 연계될 수 있는 협력 기회를 마련했다. 앞으로 대학의 창업지원 역량과 지역의 투자·산업 네트워크를 연계해 유망 기업의 발굴부터 성장, 투자까지 이어지는 지원 기반을 강화하고, 바이오·ICT 분야를 중심으로 창업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지역 맞춤형 창업지원 체계 구축 위한 전략 모색 (강원도립대학교)

지난 8월 19일 강원도립대학교 앵커사업단은 「대학·로컬 창업 전략 라운드테이블 vol.1」을 개최했다. '대학과 지역, 창업 생태계를 잇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는 대학의 창업지원 체계를 점검하고, 외부 우수사례를 바탕으로 강원도립대 여건에 적합한 창업지원 운영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서는 창업기업 발굴부터 사업화·투자·글로벌 진출까지 이어지는 단계별 지원체계와 대학 창업교육, 지역 창업생태계 조성 사례 등을 공유했다. 참석자들은 각 기관의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대학 내 창업지원 기능을 연계하고 지역 특화산업과 접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를 통해, 라운드테이블에서 공유된 사례와 논의 결과를 토대로 대학의 창업지원 콘텐츠를 보완하고 지역과 연계한 중장기 창업지원 로드맵 및 성과관리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관광·해양레저·푸드테크·오션뉴딜 등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한 창업 생태계 조성을 추진할 예정이다.

웰니스케어 실무인재 양성 위한 산학협력 강화 (한림성심대학교)

지난 13일 한림성심대학교 앵커사업단은 교내 국제회의실에서 「2026년 제1차 웰니스케어 분야별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에는 웰니스케어 분야 산업체 관계자들이 참여해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 성과를 공유하고, 산업현장 수요를 반영한 교육 프로그램과 산학협력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협의회에서는 학생들의 고객 대응 서비스 역량과 현장 실무능력 강화를 위해 단순 체험을 넘어 제품 기획부터 홍보, 현장 운영, 만족도 조사까지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는 실무 중심 교육의 필요성이 제시됐다. 또한 산업체 전문가 특강과 실습·멘토링, 지역사회 기반 현장실습(Co-op) 등을 확대해 취업 경쟁력을 갖춘 지역 정주형 실무인재를 양성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한림성심대 앵커사업단은 이번 협의회에서 도출된 의견을 향후 비교과 프로그램과 산학협력 교육에 반영하고, 지역 산업체와 연계한 현장 중심 교육을 확대해 학생들의 실무 역량과 지역 취업·정주 기반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